

## 전기안전공사, 2022 연구개발투자 권고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022 연구개발투자 권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관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공사는 전력설비 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0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9.2%의 R&D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총 164 억여 원을 전기 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구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1.94%로 높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고하는 투자 비율 1.65%를 초과 달성하였다.

공사는 또한 실증 실험 기반의 대단위 전기재해분석센터와 ESS안전성평가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과 국가산업안전 기술 개발을 위해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현 사장은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비 투자는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대한민국 전기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람 기자



## 배청열 새눈 대표, 완주군에 1000만원 쾌척

(주)새눈(대표 백청열)이 완주군 취약계층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21일 (주)새눈은 완주군을 찾아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백청열 대표와 이지연 부부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주)새눈은 상생·혁신·나눔의 이념을 통해 고객업무 혁신을 이루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꾸준히 완주군에 후원을 하고 있다.

백청열 대표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바치를 기꺼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내실이 탄탄한 명품 산림조합 만들 것”

### 최봉관 제14대 정읍산림조합장 취임

최봉관 정읍산림조합장이 21일 면세유 발급 등의 바쁜 업무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읍산림조합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취임식을 가졌다.

최봉관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비영리 협동조합의 성장을 필수 조건’이지만, 그 성장을 나눔을 위한 성장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의 임·직원들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조합장은 서남권 조경수 유통을 정읍산림조합이 책임져야 하고, 임산물직매장과 로컬푸드마트의 재구성·치유의 숲·휴양·조경수 유통단지 조성” 등 공약 추진에 민관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비영리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 경영을 해 나이김에 있어 시선을 철저히 내부로 돌려 비영리협동조합의 목적에 맞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만드는데 주어진 4년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고, 임직원과 조합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선거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달렸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하며 패자가 부끄러워 할 이유도 없다. 내실이 탄탄한 명품 정읍산림조합을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선거에서 정읍지역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최 조합장은 종로직업전문학교 조경산림 전임강사(유)에센조경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전북대학교 농생명 험방밸리연구센터 객원연구원, 2022년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경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22 한국조경수협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건협-미스코리아 녹원회, 건강증진 상호 업무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앞세우며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21일 (사)미스코리아 녹원회(이하 녹원회)와 건강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녹원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유소견자 사후관리 서비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이와 양 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 계획을 내놨다.

김인원 회장은 “사람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단체 녹원회와 협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협약으로 녹원회 회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남원시, 하림과 곤충산업 발전 협약 체결

남원시는 21일 곤충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주)하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융종사업단 이학교 단장 (주)하림 김귀호 대표 등 3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남원시와 (주)하림 등 3개 단체는 협약 체결을 통해 △사료 자원화 연구개발(R&D) 협력 △사료 생산 및 공급 △제품개발 및 연구, 판로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 △제품개발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곤충 원료물 공급 등 남원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이미 지난 해 9·8일 곤충관련 9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 장은 “(주)하림과 같은 기업과 MOU를 통한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곤충산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대-길림공상대, 대학·학생 간 우호 협정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중국 길림공상대학교(총장 ZHANG YUEJIE)와 우호 협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길림공상대학교는 1958년 개교해 중국 내 3개의 캠퍼스에 15,000명의 학생이 있는 국립대학교로, 2개의 식품 관련 교육 시험 센터와 길림성 식량 생산 교원 양성 센터 등 식량 생산과 관련해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학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은 교직원 및 연구원 교류와 교환학생 상호 학점 인정, 연구 프로그램 공동개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상(바이오기능식품학과) 교수는 “우리 대학의 바이오기능식품학과가 식품 그 자체에 대한 공학적 측면과 사람이 식품을 섭취한 이후 영양학적 측면을 동시에 연구하는 국내 몇 안 되는 특별한 학과로, 길림공상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음식의 고장인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가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한식조리학과, 외식산업학과, 바이오식품학과 등 식품과 관련된 학과들을 보유하고 있어 식량 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길림공상대학교와의 협작을 통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김제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금융 우대 협약식

김제시는 견천한 남세문화 정착과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유공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김제시는 21일 지방세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다.

김제시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김제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정액 발급수수료 감면, 김제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숙한 남세문화 정책을 위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두 금융기관(NH농협은행·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한 남세의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산소방서, 축사시설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최근 1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 돈사 화재와 관련해 4월 30일까지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기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총 209건으로 부상 6명, 16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 108건, 부주의 72건, 기계적 요인 20건, 화학적 요인 6건, 기타 63건으로 나타났다.

축사의 경우 우레탄 폼 등 가연재를 사용 진압로가 협소하고 이산에 위치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에 완산소방서는 축사 716개소를 대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화재 취약 요인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 기동순찰 △화재대응 현지적응 훈련 △소방분서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축산농가 화재예방 안전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이 기자



## 농협 전주완주군지부, 완주군에 학용품 지원

NH농협 전주완주군지부(김대호 지부장)가 완주군에 1000만 원 상당의 학용품 구리미 200세트를 지원했다.

21일 NH농협 전주완주군지부는 완주군을 방문해 영세농업인 자녀, 취약계층 이동을 위한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학용품 구리미는 개당 5만원으로 이동들에게 꼭 필요한 크레파스, 물감, 필기구 등 총 14가지로 알차게 구성됐다.

군은 기탁 받은 학용품 구리미를 교육이동복지과를 통해 13개 읍면 영세농업인 자녀들과 드림스타트 및 가정위탁 등 관내 취약계층 이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호 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협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 전주완주군지부는 이번 학용품 구리미 지원을 비롯해 취약가구 접수리와 명절 떡 구리미, 김치세트, 사랑의 빼미 지원 등 매년 완주군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 남원시보건소, 암 관리·건강검진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가 제16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대학교 병원 모아홀에서 열린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 분야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리부는 매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캠페인 실시, 유선안내, 문자 및 우편발송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국가 암검진 사업 이외에도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620-7953, 795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군산부설초, 다운증후군의 날 응원 캠페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왕규)가 21일, UN에서 공식 지정한 ‘다운증후군의 날’을 맞아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전교생이 양말을 짹짝이로 신고 등교를 하는 등 다른 장애아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행위를 실시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사친 속에 담아낸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인식개선과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다른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전라북도

시립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사업 이외에도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620-7953, 795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